국립부경대학교 임해균 교수(의공학전공)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개인 기초연구사업 우수신진연구사업에 선정됐다.임해균 교수는 이번 사업에 ‘면역항암치료를 위한 비침습적 원격 제어 가능한 음향집게-음파유전학 기반 웨어러블 기기 개발’ 연구과제로 선정됐다.우수신진연구사업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 R&D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그는 이번 연구과제 단독 연구책임자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.임해균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음향집게-음파유전학 기술을 활용해 종양세포만 표적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한다.그는 “면역세포치료제가 활성화되는 위치와 시기를 정밀하게 제어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, 주변의 건강한 세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